

'바람, 소리'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프로그램 살펴보기

전통예술의 고유성 · 확장, 월드뮤직 담아내다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를 주제로 지난 2일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에서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축제의 여정을 시작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깊이 있는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들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성격의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올해 소리축제는 전통예술의 고유성과 확장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월드뮤직을 주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 안에서 담아낸다.

축제는 인류의 호흡 바람(Wind)을 동력으로 하는 관악기를 집중 조명하는 굿작한 기획으로 꾸며진다. 또한 전통예술 속에 담긴 인류의 바람(Wish)을 살펴봄으로써 종교음악, 전복농악시리즈 등을 통해 예술이 된 우리의 바람(Wish), 바람(Wish)이 담긴 전통예술을 조명한다.

▲전통예술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고찰과 새로운 시각

소리축제는 전통예술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전통예술에 숨을 불어 넣는 작업을 지속한다. 올해는 특별히 관소리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제동행 콘서트 기획한 '관소리다섯바탕'이 눈에 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무대로 <송순섭, 이자람/적벽가>, <조통달, 유태광/양향보>, <김영자, 최현우/심청가>, <김보경, 정상희/춘향가>, <이난초, 임현빈/수궁가>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판소리다섯바탕 · 산조의 밤 · 젊은다섯바탕 등 '눈길'

클래버레이션 돋보이는 프로그램도 다채로와

소리프론티어 10주년 맞아 역대 수상팀들의 무대도

자랑한다. 관악기를 집중 조명하는 만큼 '산조의 밤'에서는 관악의 대가, 대금 원장현, 피리 최경만 명인의 품격 있는 기악 독주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서도소리 유지숙, 남도소리 장문의 명창과 함께 빛어내는 즉흥 시나위까지 산조의 전통과 새로운 열매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매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는 젊은 소리꾼들의 재기 넘치는 무대 '젊은관소리다섯바탕'은 정운형/적벽가, 김윤희/홍보가, 이상현/심청가, 최잔디/춘향가, 권송희/수궁가로 꾸며졌다.

우리 전통의 정수뿐 아니라 월드뮤직의 기원, 세계 곳곳의 원형 예술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특히 전통예술 속에 새겨진 인류의 바람(Wish)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종교음악시리즈가 진행된다. 조지아 정교회 수도사들의 다성 음악을 '이베리 콰이어'의 찬양의 목소리를 통해 만나본다. 한국 첼로의 자존심 '양성원'과 'T.M.F.양성발'이 연주하는 영성 가득한 클래식 레퍼토리오도 준비돼 있다. 이어 종교를 넘어 예술이 된 '전라북도영산작법', 영남지역의 천도지사 '이택넷수륙재보존회'를 통해 불교의식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축제 기간 5일 내내

어울림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해 온 '농악'을 새롭게 조명, 대동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고창농악, 남원농악, 이리농악, 임실팔봉농악, 정읍농악>

▲축제를 통해 탄생하는 최초의 실험과 현상 '클래버레이션'

융합과 이종의 결합으로 이뤄진 현재의 음악적 실험과 시도를 만날 수 있는 클래버레이션이 돋보이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특히 소리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실험작들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이어 EBS 스페이스 공감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관대의 노래-바람의 길'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강태환의 송고미 있는 연주와 여창 가곡 이수자 강권순 가객의 음악적 대화를 엿본다. 재즈 플루티스트 앤더스 헤그베르그는 대금의 확장 실험을 꿈꾸는 대금연주자 이창선과 새로운 충돌을 찾아낸다. 티베트 명상음악을 대표하는 나왕 케축의 영성 가득한 연주와 한국전통 무용가 여미도의 즉흥 춤사위도 놓칠 수 없다. 축제의 폐막을 장식할 대형 '관대시나위'가 빛어낼 복합적이고 다양한 장르 간 충돌의 현상도 빼 놓을 수 없다. 전북 지역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 대중적인 락 음악과



제18회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날인 지난 2일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막기자회견이 실시된 가운데 김한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악,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펼쳐볼 예정이다. 아시아 전통음악 창작제2년차 2년차 진행되는 '아시아소리프로젝트 2019'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동반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지난해와 또 다른 아시아 전통음악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양상블 셀레네'는 '스키야키 미츠 더 월드' 축제와의 MOU를 통해 출품한 프로젝트로 다국적 젊은 여성 뮤지션들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전통의 진화, 확장을 통해 구현된 새로운 음악시조 '컨템포러리'

현 세대가 현 시대에서 공유할 수 있는 현재의 음악, 소리축제는 현대의 다양한 음악적 경향을 존중하고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풍성히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소리프론티어 10주년'을 맞아 '한국형 월드뮤직'을 지향하며 특색 있게 음악 작업을 이

요의 현대화, 해외에서 주목하는 한국 전통음악의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행보를 소개한다. 이 외에도 한국 컨템포러리 뮤지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신노이', '트레봉' 팀이 관객을 찾는다.

또한 지역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CBS전북 '별빛콘서트(박미경, 부활, 정훈희, 최성수, 홍경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아트스테이지 소리 플러스(불빨간 사춘기, 정준인)', ‧100 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의 '탄생배 더빙전', 전주마당창극 '진짜진짜옹고집', 전라북도경계통상진흥원과 함께하는 전북 사회적경제페스티벌을 통해 더욱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올해 주제인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프로그램과 관객 참여행사도 다채롭다. 세대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체험 프로그램 역시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리축제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선도하기 위해 '에코페스티벌'을 향한 첫 발걸음을 땀다. 육수수 분해 플라스틱 사용, 문화에 속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쓰레기 분리수거 존 설치 등 축제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한편, 유료 공연 예매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연도 풍성하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화상인증병원 지정

예수병원이 지난 9월 30일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환자의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상인증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은 기존 한강성심병원 등 4곳 외에 전주 예수병원을 비롯한 5곳이 늘어나 총 9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화상인증병원은 전문적인 화상 치료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화상인증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부보호제, 드레싱류 등 공단에서 정한 치료재료에 대해 산재환자의 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부 재활운동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진주로 확대했다. /김윤상 기자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왼쪽)과 선거현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장은 지난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주한옥마을 및 향교일대에서 진행되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프로그램과 올해 축제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 전주 비빔밥축제, 9~12일 개최

축제 장소 확장 ·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전주, 사회혁신 10대 맛집 선정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독립서점인 '책방 토닥토닥', 서서화동 소나무공동체, 전주시장실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회혁신 맛집으로 선정됐다. 전주사회혁신센터(소장 원민, 이하 혁신센터)는 2일 올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위해 도전하고 소통한 공간을 의미하는 '사회혁신 맛집' 10곳을 선정 · 발표했다.

선정된 10곳은 △전주시시장실 △פק두 △착한공작소 △책방 토닥토닥 △카케 나비 △기린도원 △커뮤니티 마실 △소나무공동체 △커먼즈필드 △성평등 플랫폼이다. 사회혁신 맛집으로 선정된 장소에는 입간판이 설치되고, 사회혁신 지도도 제작될 예정이다.

혁신센터는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오는 18일과 19일 열리는 '2019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장 야외공간에서 사회혁신 맛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미식축제인 '2019 전주비빔밥축제'가 전주의 맛과 문화를 바꾸려 다채롭게 차려진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선거현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주한옥마을 및 향교일대에서 진행되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프로그램과 올해 축제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비빔밥축제는 6개 분야 4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제 장소를 서하동 예술마을과 남부시장 등으로 확장하고, 시민과 여행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전주음식업소 맛집 부스를 확대한 것이다. 또, 축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비빔전설

△연회단 △각설이패 △기점놀이 등 동적인 공연도 연회적인 콘텐츠도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전주비빔밥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자 행사장 메인에 위치한 대형비빔밥과 35동에서 준비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비빔밥을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는 '3355 우리동네비빔밥'이 맛갈나게 비벼봐 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또한 해외유력인턴에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접할 곳이 없는 도시'로 소개된 전주의 손맛을 이어온 명인·명가·명소 등이 축제장에 직접 나와 관람객들과 만나고, 다양하고 맛갈스런 음식들뿐만 아니라 음식의 품격을 높여주는 전주의 독창적인 식기류와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인 중국 징더전 등 아름다운 테이블웨어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초청 마스터셰프 쿵강콘서트에는 미국 샌

안토니오, 스웨덴 오스터순드, 멕시코 엔세니다, 중국 순더 등 4개국 셰프들이 직접 참여해 세계 국제음식 창의도시의 전통음식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글로벌 먹거리를 선보이기 위한 다문화푸드존도 마련돼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서는 △대형 비빔밥 앞에서 사진도 찍고 시식도 할 수 있는 '대형비빔밥 찍고! 먹고!' △다양한 미션 수행 후 얻은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비빔밥을 찾아라' 등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오늘날 전주음식의 뿌리인 알려진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과 135년 전 전라감영을 다녀간 외국인의 일기에서 찾은 전라감영의 외국인 접대상도 재현돼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송효철 기자

국제슬로시티 전주, 전 세계 모범사례

시 · 슬로시티본부, 슬로포럼 개최

세계 유일의 도심형 국제슬로시티인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생활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는 근대성을 보여준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피에르 조르조 올리베티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총장은 2일 국내 · 외 슬로시티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3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제 슬로시티의 역사와 슬로시티의 개념, 전 세계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올리베티 사무총장은 이날 '슬로시티: 빠른 미래에서 느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운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3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제 슬로시티의 역사와 슬로시티의 개념, 전 세계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슬로시티: 빠른 미래에서 느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운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3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제 슬로시티의 역사와 슬로시티의 개념, 전 세계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덕진구, 건산천 우수 · 악취 중 · 장기 대책 마련 나서

전주시 진북동 · 금암동 주민들의 악취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덕진구가 도심하천인 건산천 우수 · 악취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중 · 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엽)는 건산천의 우수 및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산천 개선 및 건산천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산천은 하천수량이 적고 유수의 흐름이 없으며, 잠깐거리와 인공 소에 물이 고여 있어 부영양화 및 오염이 발생, 강우 시 우수 유입 등으로 악취발생과 해충서식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팔달로 북문교부터 건산천 북계종까지 총 670m(북원구간

사례를 소개하는 슬로시티 전주는 생활적 근대성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슬로시티 연맹이 장차 주목할 국제 슬로시티의 3가지 주요 핵심포인트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성 △유산의 보존과 혁신에 대한 '생활' △시민과 정치인의 공동의사결정에 따른 협치 '책임감'이라며 "매일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슬로니스 없이 좋은 삶과 좋은 시민이 없다는 전제하에 △순환경제 △회복력 △사회정의의 △지속성 및 문화의 4가지를 슬로시티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슬로건과 '슬로시티와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 슬로 전문가들이 슬로시티 철학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공동 문제들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세계 25개 슬로시티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도시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Chicocola Orange 2019)'을 수상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270m, 북계구간 400m) 구간이다. 구는 건산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 · 단기적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한 이끼 제거사업과 하천 내 정체수역 발생구간 주요인 소 3개소 개선 사업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 · 우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해 생활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산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건산천 개선 실시계획 용역 착수한 상태로,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북계구간 내부 및 하천 정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송효철 기자